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해님 어찌께서는 인간 역사에서 해님의 말씀을 따라 화를 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나 사탄 마귀는 유혹하여 분열과 상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날씨가 통일되는 평화의 날을 하루 속히 앞당기는 기도의 헌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통일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8호 2013년 6월 2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한 눈으로 성경을, 한 눈으로 SNS를!”

바나리서치, 목회현장에서 검증하는 SNS목회 설문조사

이제 세상은 페이스북(팻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인이면 누구나 접속해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에서 만나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전달하고, 문제를 호소한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해결해 주는 등의 소통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목회는 어떠해야 할까? 해답은 바로 'SNS 목회'다.

목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에 기초하듯이 SNS 또한 인간관계에 의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SNS는 목회의 기본이며 때려야 떨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뭘까. SNS로 통용되는 이 시대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이자,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SNS 시대의 패러다임은 참여, 공유,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스마트시대의 목회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최근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SNS목회에 대한 설문조사, 1,263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SNS 목회의 현주소를 짚어 준다(The Rise of the @Pastor).

지난 2년 동안, 목회현장에서 SNS 사용은 엄청난 비약을 보였다. SNS 열풍이 일기 시작한 2011년에는 11%에 불과했던 교회공동체에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미국 목회자 중 1명이 트위터를 사용할 정도로 (2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페이스북(팻북)은 57%까지 수치 상승했고 목회자들은 또한 본인들의 개인 블로그까지 운영하면서 교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며, 교인들의 고민이나 갈등 사례를 설교 중 예화로 사용할 정도로 SNS 시장은 뜨겁기만 하다.

간단한 문장이나 의견 표시로 '팔로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유명 인사들과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목회자들은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를 애용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목회자들은 12% 증가한 반면, 트위터 이용자는 초고속 상승 즉 77%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25%의 목회자들이 트위터쪽으로, 보통 250명 이상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34%로 주종을 이루며, 50만 달러 이상의 재정으로 교회들을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35%로, 그리고 29세에서 47세 사이 목회자들이 39%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목회현장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흐릿해진 시력을 위해 설교나 강연 시에 종이원고 대신 활자의 크기를 마음껏 키운 화상원고(prompter)를 사용한다.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트위터를 통해 교인들과 소통하며, 독서를 하며 웹브라우징을 한다.

△이동 중에도 교회 제직들과 웹 컨퍼런싱(Web-conferencing화상/음성 회의)을 한다.

△심방이나 예배 시에 스마트 폰이나 아이패드에 내장된 찬송가 전곡의 악보(영상)와 음원(반주)을 활용하여 은혜롭게 찬송을 드린다.

페이스북은 심지어 그 기원에 대해 만든 영화(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 장치"라고 소개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됐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약 1억7,000만 명과 전 세계에서 10억의 회원 수를 자랑한다. 결국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목회자들도 페이스북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3년 미국 교회의 70%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수치는 2011년 57%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팻북을 사



이 시대 첨단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등장한 팻북, 트위터 등의 SNS가 목회에도 큰 비중으로 사용되어가고 있다.

용한 SNS로 목회에 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위 "팻북 페인"이 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250명 이상의 교인들과 재정적으로 안정을 보이는 교회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86%). 그러나 단지 평균 출석 100명 미만 명은 56% 정도 사용하고 있고, 흑인 교회에서는 절반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목회자의 약 3분의2(66%)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 가운데 페이스북 사용에 가장 눈에 띄는 차

이는 연령그룹이다. 버스터(27-47세)세대 목회자 중 86%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목회자들이 37%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이다. 이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 증가는 향후 목회현장에서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한 2/3 이상의 목회자들은 미래 목회에 SNS가 주요 목회 장비로 운용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이다.

(14면으로 계속)



6.25한국전쟁 당시 원산항남 철수작전에서 7010명을 구해낸 SS 레인빅토리호

6.25한국전쟁 맹활약 S.S. 레인빅토리 호

7월 27일 '한인의 날'에 크루즈 특별행사

1950년 한반도에 발발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증기선 S.S. 레인빅토리 호(Lane Victory)가 현재 LA 샌피드로 항구에 정박해 전쟁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인빅토리 호는 한국전쟁에 참전 원산항남 철수작전에서 맹활약, 피난민 7,010명을 구조한 '한국의 윈들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레인빅토리 호는 상선이었지만 전쟁 당시 군용으로 사용됐고 원산항남 철수작전 당시 군수품 대신 7,009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배안에서 한 명의 생명이 탄생돼 피난민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는 7,010명이 구출된 것이다. 레인빅토리 호의 활약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 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연상하게 된다.

1989년 퇴역, 현재 샌피드로 49번 부두에 정박해 전쟁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빅토리 호는 할리우드에서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

한편 레인빅토리 호를 관리하는 미전쟁상선재단(USMMVW)은 7월 27일을 '한인의 날'로 정하고 한인들에게 특별 크루즈 기회를 제공한다. 요금은 평소엔 165달러지만 27일은 130-150달러로 특별 할인한다. 이날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대해 보은행사를 펼친다.

7월 27일 오전 8시30분 샌피드로 항구에서 출발하는 빅토리 호 크루즈 선상에서는 국악공연과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리게 된다. 또 기관실 등을 공개하고 군함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샌피드로 항구로 돌아온다.

(3면으로 계속)
(박준호 기자)



2면 총의 천국, 미국...총기규제는 생존의 문제



3면 영적형성 기회와 지역사회 위한 봉사



7면 제2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김만형 목사(친구들교회)



9면 인터뷰 조경진 목사(사)생명을 나누는사람들



16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수곡미술선교회 회장)

SUNDESERTS SOLAR

Contractors Lic# 983528

선 데저트 솔라에서

태양열 인턴 학생들의 도움으로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Let our solar students install your FREE SOLAR SYSTEM!

교회&비영리단체 (Churches&Non-profits)	상업용 (Commercial)
FREE! *무료 설치	Almost free! 거의 무료로 해드립니다

*귀하는 디자인과 시 허가증만 내시면 저희들은 재료와 노동을 제공합니다
 Customer pays for Design and City Permit (We cover material and Labor)

선 데저트 솔라는 LA에서 태양열 기술 및 설치를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323) 683-6733 | English (213) 364-7972



시론

에덴동산에서



양춘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해 봅니다.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좋은 학교, 안전한 동네, 깨끗한 주변 환경들이 우리 삶의 행복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여건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이 아닐까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고, 벌거벗었으나 자신이나 서로

를 향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곳, 그 이름 자체가 "환희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상적인 낙원이 바로 에덴동산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첫 범죄는 에덴동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 있는 것을 즐기며 행복해 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불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3:16-17)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풍성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좋은 학교에서 자녀를 키우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의 소유를 지키며, 좋은 동네에서 자유롭게 살면 모두가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고 좋은 동네에 살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욕심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기쁨과 감사와 없고, 오히려 불행과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고 겸손하게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총의 천국, 미국...총기규제는 생존의 문제

뉴스위크, 커버스토리로 총기규제 본질 지적

살벌한 대도시에선 총기규제가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코네티컷 뉴타운의 샌다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으로 정점에 올랐던 '총기 규제' 논란이 사그러지는 것 같다가, 다시 보스턴 마라톤 사건으로 규제를 끝자로 한 법안이 최근 연방 상원까지 상정됐다. 부결됐다. 그만큼 총기규제 논란은 총기로 인한 대형 참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곧잘 등장하는 단골 쟁점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정치 헌금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전미총기협회'의 아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위크(Newsweek)지는 커버스토리로 이른바 총의 천국인 미국에 내린 저주, 즉 총기 규제는 권리가 아닌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KILL ZONE : In America's cities gun control isn't about rights. It's about survival).



현재 캘리포니아 LA카운티에는 450여개 갱단의 단원이 4만5000명에 이르며, 살인의 약 절반이 갱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바로 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한 번만 총에 맞는 게 아니다. 총에 맞고도 용케 살아남은 청소년들은 중환자실로 실려가며 집착한 자부심을 보인다. 얼마 전 한 영국 기자의 의사가 그런 청소년을 두고 "상용고객"(frequent fliers)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카고에선 갱과 총기 사건이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최근 한 주말 1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기 소유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지 여부로 요약된다. 하지만 대도시와 같은 살벌한 현상에서는 총기 소유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뉴욕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223명, 시카고에서 사망한 435명, LA에서 사망한 414명의 권리가 총기 소유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최근 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총기 소유자의 82%가 백인이며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나 총기살인 피해자의 72%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며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살다가 죽는다. 대도시의 특징은 바로 총기친화적인 환경이라는 점이다.

'총기 폭력'에 관한 통계에서도 혼

다가올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더욱 압박에 나섰다. 전미총기협회는 특히 총기 소지가 전통적인 생활 문화로 뿌리내린 농촌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 지역 출신 상·하원 의원들은 전미총기협회가 조직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고, 실제로 그랬다. 정치인들이 전미총기협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미총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신병력자를 포함한 우범자와 흉악범에 관한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아무튼 과거 어느 때보다 승산이 있어 보이던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번과 같은 정치적 추진력을 다시 살리려 힘들이고 있다.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총기규제에 동조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지 않는

총기사건 때마다 규제법안 부상 불구 정치적 쟁점화 총기소유 많은 시골보다 대도시 살인률 높은 아이러니

사망했다. 뉴욕의 경우 현재 다른 도시보다 살인률이 훨씬 낮지만 험한 구역에 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6월 첫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6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7명이 사망했다.

결국 영문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갱단들이 내뿜는 유탄에 맞거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범죄자들의 막무가내식 총질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현상은 "현시대 미국의 최대 비극"이라는 사실이 맞다.

미국의 총기 논쟁은 끝이 없다. 학교나 쇼핑몰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총기를 둘러싼 논쟁은 더 치열해진다. 그러나 합리적인 총기법 제정은 늘 무산된다.

최근 대대적인 총기 규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진 독약 묻은 편지 같은 명백한 미치광이 행위도 있다. 그 편지엔 "내 총을 빼앗아 가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각오하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들어 있었다. 총기를 둘러싼 논쟁 대부분은 총

동이 자주 생긴다. 총기를 많이 소유하는 시골은 살인률이 도시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자살을 기도한다. 감정이 격하기 쉬운 10대의 경우 자살 기도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1990년대 뉴욕시에서는 1년에 약 2000명이 살해됐다. 그중 절반이 총에 맞아 숨졌다. 15-24세의 살인률이 농촌의 같은 연령대보다 5배나 높았다. 바로 그 문제를 대도시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가 직접 나섰다"고 말하면서, 총기와와의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를 맞아, 국회에 상정한 총기 규제 법안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대리전쟁'을 결연하게 수행하고 있다. 바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총기 소유가 권리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총기규제법안이 부결된 데 고무된 전미총기협회는 앞으로 유사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기협회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도 총기규제와 관련한 개별 의원의 점수를 근거로 '요주의'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무려 11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총기규제법안이 좌절되자 오바마 행정부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빠졌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후속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분실 총기류에 관한 정보를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 총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말이다.

결국 연이은 참사로 감정이 격해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실제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감정적이 될 수록 오히려 자기방어 본능은 더욱 강해져서 총기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총기소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반대급부가 강해졌다. 총기소유에 자체에 대한 반대와 아니라 소유의 자격을 엄격히 하자는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의회가 돼버렸다. 그리고 바로 총의 천국, 미국에 내린 저주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영적형성 기회와 지역사회 위한 봉사

UMC, 교회의 온전한 활력성 평가지표 제시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평가받는 요소는 두 가지 면, 즉 예배 참석자의 수와 헌금 액수만을 가지고 측정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수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교인 수와 헌금의 액수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활력적인 사역이 잘 감당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바커(Amy Valdez Barker) 목사는 진단한다. 그렇다면 활력적인 교회의 요건들은 무엇일까?

바커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녀는 교단의 사명, 사역, 자원을 조정하고 있는 연대사역협의회의 실행총무를 맡고 있다. 그녀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연대사역협의회의 의회 설립된 활력적 교회특별소위원회(Vital Congregations initiative)의 프로젝트 담당자로서도 일한 적이 있다. 그녀뿐만이 아니다. 전체 연합

모임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레이스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회복 사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교단 지도자들이 은혜교회를 활력적인 교회로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은혜교회의 담임목사(Jorge Acevedo)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력적인 교회"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이 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감리교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활력성의 지표"가 새롭게

보완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라고 말한다. 교회가 활력적

△평균 예배 참석자 수 △지역전도

△영적 형성(소그룹, 주일학교, 성경공부) △선교(봉사활동)

△청지기 의식(교단 분담금 포함 구제 자선 지원금)

감리교회의 목회자, 감독, 평신도들은 활력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수십 년에 걸친 미국 내 교인 수 감소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교단의 노력에 맞물려 "활력성"이라는 용어는 점점 더 사람들의 주제가 되고 있다.

바커 목사에 따르면, 교회의 활력성 지표는 바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이다! 따라서 UMC는 다음의 두 교회를 사례로 들고 있다:

남서부 플로리다에 여러 지교회를 두고 있는 은혜연합감리교회는 보통 매주 2,5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에는 100여 개 이상의 소그룹

하지만 교단 지도자들은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몬타나 빌링스의 복음연합감리교회도 활력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 은혜교회와 같이 이 교회도 매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2011년 12월 이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엘로우스톤연합감리교회 무료가게'라는 나눔의 사역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이 교회의 매주 평균 예배 참석자 수는 98명이다.

그러나 은혜교회와 복음교회의 공통점은 이들 교회가 영적형성의 기회와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

사용되고 있다: △평균 예배 참석자 수 △교인 수로 측정되는 전도 현황 △소그룹, 주일학교, 성경공부로 측정되는 영적 형성 현황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인 수로 측정되는 선교 사역들 △교단 전반의 분담금을 포함해 구제와 자선 사역을 지원하도록 다른 기관에 드러지는 교회의 총 헌금액으로 측정되는 청지기 의식

이처럼 활력성의 지표가 새롭게 변화된 점에 대해 바커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반영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런 "생명력이 넘쳐나서 교회의 모든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현재 UMC는 활력성을 모토로 정체 상태에 빠진 교회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고 있지만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열심이다. 동교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역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교회들의 수가 많아져 이들 중 많은 교회들이 활력적이기는 하지만 건물 유지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6.25한국전쟁 맹활약 S.S. 레인빅토리 호

<1면에서 계속> 미전쟁상선재단은 빅토리 호 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할 단체 및 개인을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은 (562)355-1268로 하면 된다.

[장진호 전투] 1950년 11월 27일 동부전선의 미 제1해병사단이 서부전선에서 중공 제13병단과 격전 중인 미 제8군과 접촉을 유

지하려고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 제9병단(7개 사단 12만 병력)의 공격으로 포위돼 포위망을 뚫고 장진호 계곡을 빠져 나오기까지 2주일 동안 치른 철수작전이다. 이 전투에서 제1해병사단은 후심한 추위와 극한상황을 무릅쓰고 함경남도 장진군 유담리에서 진흥리까지 40km가 넘는 협곡지대에 걸걸이 에워싸인 중공군 포위망을 벗어나는 동

안 수많은 전사자와 동사자가 발생했으나 유엔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으며 돌파작전을 전개해 함흥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의 함흥지역 진출이 2주일이나 지연됨으로써 동북 지방으로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이 흥남으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으며, 곧 이어 개시된 흥남 철수작전이 가능하게 됐다.

[흥남철수작전] 1950년 12월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중공군에

게 패하여 38선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제3사단, 제7사단, 제1해병사단)과 한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3사단)을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해 병력을 재 전개시킨 철수작전이다. 이 철수작전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3척의 군함으로 10만5천명의 한·미 양군 병력과 1만7천대의 차량, 9만1천명의 피난민, 35만 톤의 화물을 해상으로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다.

시편'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영의 음성을 귀기울이어 듣는 습관을 가지라

(시 95편)

약기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하옵고, 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 동안 열심히 나를 돌보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하시고 힘 없으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아시지요? 도자기 굽는 자와 도자기와 같은 관계입니다. 만드는데는 만드는데는 만드는데, 깨뜨릴 권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첫 말씀에도 '내가 너를 지은 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창1:1).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기르시기를 원하셨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품안에 두시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리라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사43:4)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함이 어떻게 관계없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양이므로 늘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실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아주시는구나... 그의 양이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위로해주시는 음성, 용기를 주시는 음성,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음성, 복을 주시는 음성,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 오늘에 이르러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살아있는 그 음성은 환경도 꺾을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육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믿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만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광야를, 요단강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에 미혹되어서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이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러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분이요, 이제 그분은 나를 지르시는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갑시다!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교회가임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목사 안수
 -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필기시험
 - 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추천서 2인(소정양식)
-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제 출 기 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고 시 장 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 및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6. 문의

총회총무: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총회고시위원: 최명상 목사 (323)317-3749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집회를 위해 고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여러 목회자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도 젊어 보입니다.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윤이 나고 얼굴은 팽팽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일은 다반

사고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습은 건강하게 보이고 또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은 좋은 반면 연륜 있는 모습으로 성도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일입니다. 사진작가 모임

에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작가는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느 작가는 아름다운 꽃을 담았고, 공중을 나는 새, 산과 바다 등등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에서 뽑힌 사진은 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사진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꾸미지 않은 순수한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합니다. 며칠전 TV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은 소원하는 대학생이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환경에서 자라나 평생에 대학을 가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가정형편에 임신까지 하게 되어 그 소원은 뒤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얼굴에 너무나 큰 종양이 생겨 제거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거수술을 받게 되면 아이를 잃어야 함으로 의사의 권유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얼굴의 많은 부분을 잃어야 했습니다. 뼈까지 녹게 하는 종양이었기에 수술 후 얼굴모습은 너무도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받아 음식을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괴물을 보는 것 같아 아이들의 놀림걸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자신의 모습을 비판도 했으면만 TV에 비치는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다'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딸이었는데 잘 자라서 학생이 되었고 엄마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미각도 잃어 음식의 맛을 볼 수 없어 남편과 딸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만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음식의 간을 측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버리고 선택한 아이와 함께 또 뒤늦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아름다운 가정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소한 간판을 보았습니다. '영구화장'

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후에 그것이 눈썹신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만난 여성분들은 제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진한 쌍꺼풀수술 자국이며, 사납게 보이는 눈썹문신이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도 익숙해졌지만 말입니다. 고대기록에 보면 화장을 통해 신분을 나타내거나 종교적인 이유이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꾸미는 아름다움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급식기도원 안양/강화/LA 담임)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도전에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해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은 여전히 주저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용사였음을 잊은 채 그분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일만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순입니다.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세 마디 말씀을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의미 있는 순종해야 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16절). 예수님께서 뱀새다 광야로 나아

고 하신 것입니다. 없는 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복을 주시고자 함이지 빼앗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들이

말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군중과 아직도 가꾸어져야 할 연약한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재촉하여 보내셨으니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타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이들이 놀랄만한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기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스승의 말씀에 따

라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설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고 하시는 주님과 관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문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하시면 모처럼 머물고 싶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이 있는 곳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의 음성입니다. 나태와 안일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하심은 책임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주께서 하신 '오라'는 짧은 한마디 말씀으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은 많은 설명보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오라'하심은 정작 주의 허락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풍랑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있었던 그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셨으니 나와서 걸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마태복음 14:2-33)

주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 속에 주님의 말씀 세 마디를 따라 우리도 순종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마침내 다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하셨다면 남다른 비전과 거룩한 열심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누구도 경험치 못한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기다릴 때보다 들을 때보다 행하는 일은 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간증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찬양대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섬기실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부 찬양대 지휘자(파트타임) 1명

❖ 자격: 신학 중 혹은 신학을 마친 분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부지휘자(파트타임) 1명, 음악간사(해프타임) 1명

❖ 제출 서류: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2장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 혹은 행정 목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오디오와 인터뷰

❖ 마감일: 2013년 7월 1일

❖ 문의 및 제출처: 조성환 음악 목사 (714) 403-8952 scho@hiu.edu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 Rev. Chang Soo Ro, Sr. Pastor
www.sarang.com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e-mail: church@sarang.com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 4. 목회 계획서
 - 5. 학위 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 1. 1차 서류심사
 - 2. 2차 개별인터뷰
-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3) 제출처

-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 2. E-mail: chungang.ar@gmail.com
 - 3. Facebook.com/chungang.ar
-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 1. 우편이나 E-mail.
- 2. 기한: 주후 2013년 7월 31일까지 (2013년 7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한국이 가진 새로운 세계 타이틀 중에 하나는 '성형수술의 천국'이다. 한국은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이나 수준에서 세계의 정상이다. 작년에 미스코리아가 성형수술했다고 논란이 되었으나 왕관을 지켰다. 2013년 미스코리아에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20여명이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다. 이제는 눈수술 같은 것은 화장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미스코리아 대회도 자연미 대회가 아니라 '조형미 대회'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한국의 성형수술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성형과 관계된 새로운 유머들도 등장했다. 천국문에 도착하면 유난히 긴 줄이 있다고 한다. 바로 한국성도들은 천국문에서 특별히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수

여 좀더 높은 연봉을 받고, 좀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수술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현재에 일어나는 '성형 열풍'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신체의 부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수술은 항상 신체적인 심리적인 부작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수술 전에 먼저 위험이 무엇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수술을 받고자 하는지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외모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목상해야 한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외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고대 성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경은 요셉의 준수하고 아름답고, 모세의 준수함, 사울의 준수함과 키, 다윗의 준수함, 암살품의 외모 등을 묘사하고 있다. 리더의 덕목 중의 하나가 신체적인 조건이었다. 여성에 대해서도 사라의 아름다움, 리브가의 아름다움, 라헬의 아름다움,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움 등 외모에 대한 표현들도 나온다. 심지어는 사무엘마저

신 불평과 불만이 사로잡는다. 만약에 성형의 목적이 외모로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서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자기 근심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자만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신앙의 성숙은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서 영광과 위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사야 52:14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했다. 53장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고 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30대의 예수님보고 50도 안되었다고 했다(요8). 예수님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인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게 된 전도사입니다. 장차 목회자가 되어 보람있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이민교회 목회에서 어떤 면을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강조해야 하는지요? 선배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사에서 심 전도사

A: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에서 예배(worship)와 제자훈련(Discipleship Training) 그리고 세계 선교(World Mission)를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려면 영동적인 예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을 정착시키고 일군을 만들어 장기목회를 하려면 제자훈련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선교임을 강조하며 목회지향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목회 목회자로 세 가지 중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민목회에 승리하는 목회를 하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참여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예배를 영감이 있고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면 예배에서 벌써 큰 차이가 난다

예배, 제자훈련, 선교... 특히 예배에 집중

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역동적이고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며 다음 주일에도 그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려고 합니다.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목회현장을 가보면 예배가 어둡고 차갑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목회에 승리하고 열매 맺는 목회를 하려면 예배를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예배전문가입니다. 좋은 예배의 모델을 부흥하는 교회들을 순방하며 케이스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월간목회' 잡지에서 서울의 신학교회 이신웅 목사는 "한국교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격이 상실된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둘째, 예배의 역동성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예배자들이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영적불감증이 만연되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좋은 예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입니다. 예배 강신으로 알려진 Church on the way의 잭 헤이포드 목사가 쓴 "Mastering Worship"이란 책을 보면 헤이포드 목사가 테네시 주의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예배는 다른 교회에 비해 형식이 비슷하듯 강한 임재가 느껴지며 자기의 설교도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 두 사람의 평신도에게 "오늘 예배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평신도가 "목사님, 교회 옆의 목사님사택 뒤에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들도 데리고 가서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이면 그 창고에 가서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 꼭 기도하시는데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2-3시간을 늘 토요일 밤에는 기도하십니다"라고 말했다. 그 교회에 임한 강한 영적 임재는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좋은 예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설교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은 회중들을 향한 예의입니다. 특히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해야 하며 좋은 설교를 위해 가능한 외우다 시피해 원고에 매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형 열풍과 성경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가 많아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일본과 대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는 할리우드 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할리우드 영상문화는 외적인 미모를 숭배한다. 아름다움이 선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물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한다. 고대 바벨론에서도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도 독특한 화장술이 있었다.

성형 열풍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져왔다는 사실이다. 미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중세의 미인상과 현대의 미인상은 다르다. 현대의 미인상은 바비인형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유명한 미인은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양귀비이다. 양귀비도 마른 체격이 아닌 풍만한 체격이었다. 전통적 한국의 여성미는 서양적인 기준이 들어오면서 서구적인 여성미로 바뀌었다.

물론 성도라고해서 성형의 유혹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일반인 중에 성형을 생각해보는 사람이 약 78%라

한 성형 Cosmetic or Plastic 수술로 나눈다.

성형수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는 미에 대한 생각이다. 영상시대에서는 아름다움도 상품화가 되는 시대이다. 미의 상품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형은 자신의 가치가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제는 아름다움이 물질과 연관되면서 물질주의적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성형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사치가 아닌 필요와 전략과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요즈음은 성형수술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성형의 보편화 시대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외모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다. 과거에는 유교적 전통 밑에서 부모가 주신 몸에 손대지 않는다 생각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 외모를 중시하고, 예쁘고 잘생김을 높이 평가한다. 동등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외모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고, 취직이 결정되고,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보험의 혜택도 받지 않는 많은 돈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수술을 통해서 외모의 가치를 높

도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세울 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다.

외모에 대한 기독교의 가치관은 외적인 형상보다는 내적인 형상에 중심을 둔다. 성경은 외모보다는 마음의 아름다움에 무게를 둔다. 물론 성경은 성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성형수술을 할 만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다. 성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세속적인 인식의 배후에는 사회를 혼란케 하고 영혼을 멸하게 하는 맘몬신, 탐심, 우상숭배, 사단이 존재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은 '거짓'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자족의 문제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모에 대한 자족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족은 나의 외모로부터 시작한다. 자족의 영역이 무너질 때에 감사 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궁극이 아니라 마귀간에서 나셨고,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송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외과의사는 하나님이다.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수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을 약속하신다. 그 수술은 외모의 수술이 아니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영적인 수술이다(겔36:25-26).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고는 모든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다.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온유와 겸손이고(마11:29), 성경의 9가지 열매이고(갈5:22-23), 믿음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 이번 기회에 성령님의 수술에 몸을 맡기는 영적 성형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건강에 유익한 사랑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미국 국립질병통제센터(CDC)의 제니스 윌리엄스 박사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

은 미국심장학회(AHA) 학술지인 '뇌졸중'(2002년 1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1만4000명의 성인(48-67세)을 대상으로 8년 간 조사한 결과

성격적으로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심장연맹은 "사랑과 백 카드와 붉은 잠미 대신 직접 사랑을 하거나 받으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심장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질 경우 심장 질환의 3대 요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와 의기소침, 불안 증세를 줄일 수 있어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연맹의 회장인 필립 폴 윌슨 교수는 "전 세계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장병과 발작증세가 주원인이며, 이는 에이즈 사망률보다 6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장 협심증 발병률이 높은 1만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

다. 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협심증 발병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심장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4:26)라고 권고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운동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건강증

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건강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만 챙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육체적인 건강만 추구하는 것은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는 것을 절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면 남부럽지 않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졸업생대표, 고별사 짓고 주기도문 암송

미국의 한 공립고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가 준비해온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교칙에 항의하는 일종의 시위였다. 이 학생은 현지 크리스천들의 영웅이 됐다.



지난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연단에 선 로이 코스트너 4세(사진)는 학교의 승인 받은 연설문을 찢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졸업식에 참석한 동지들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코스트너 뒤에 앉아있던 교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리버티고교를 비롯한 피켄스 카운티 학군의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란 단체의 압력으로 지난 학기부터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다. 코스트너는 12일 CNN과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며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측은 "매우 공격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이라며 분노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피켄스 카운티 교육당국 관계자는 "코스트너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코스트너를 문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텍사스 주지사,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 서명

릭 페리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에 서명했다고 17일 AP통신이 전했다. 무신론자들에게 맞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를 수 있게 한 법안이 발효된 것이다.



앞서 텍사스 주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트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무신론 단체들의 거듭된 항의에 '홀리데이 트리'란 이름으로 바뀌자 공화당 드웨인 보학 하원의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을 발의했다. 크리스마스 용어뿐 아니라 메노라(유대교 제식에 쓰이는 촛대) 등 다른 종교 상징물도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텍사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페리 주지사는 "오늘 내가 서명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지만 우리 주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게 돼 기쁘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페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 텍사스 동부의 쿤츠고등학교 치어리더들을 대동했다.

최대 가톨릭권 브라질서 기독교 급성장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17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톨릭교회가 제대로 보듬지 못한 브라질 도시 빈민층을 파고든 개신교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인구 2억명 가운데 5000만명(25%) 정도가 개신교인이며, 이 중 4400만명이 오순절파 신앙을 갖고 있다. 1970년대까지 90%를 차지하던 가톨릭 인구는 60%대로 줄었다. 가톨릭교회의 엄숙한 미사와 달리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찬양하는 개신교 예배가 현지인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교세 확장과 함께 기독교계는 현지에서 무시 못할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스타 설교자인 실라 말라피아(사진) 목사가 지난 5일 수도 브라질리아의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연 동성결혼·낙태 반대 시위에는 4만여명이 운집했다.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를 국가적 어젠다로 끌어올린 말라피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사탄은 가족의 가치를 절대로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현재 브라질 하원의 68석과 상원의 3석을 개신교계 정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개신교계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정치세력으로 떠오르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목사 출신 정치인 마르셀로 크리벨라를 수산양식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다비드 플라이셔 브라질리아대 정치학 교수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호세프 대통령은 개신교계를 소외시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폭동 유발 이슬람교도 26년형 선고

미얀마에서 지난달 폭동을 유발한 이슬람교도 남성에게 26년형이 선고됐다. 미얀마 북동부 라시오 지방법원은 12일 불교도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26년(48)에게 26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지난달 라시오에서 휘발유 판매상이었던 불교도 여성에게 중화상을 입히자 불교도들이 격분해 무슬림 주민의 가옥과 사원, 가게에 방화하거나 파괴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3월에도 중부 메이크틸라에서 주민의 다수인 불교도와 소수 이슬람교도 사이에 유사한 종교 갈등이 일어나 40여명이 숨지고,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대피했다. 지난해에는 서부 라카인 주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과 불교도 사이에 폭력이 발생해 200여명이 숨지고 12만여 명이 피난했다. 라카인 주 당국은 최근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 2곳에 대해 이슬람 인구 증가율이 높다며, 이슬람 가구에 대해 자녀를 돌만 날도록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미 언론, 동성결혼 '지지 논조' 압도적

미국 언론들은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논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58개 언론매체가 보도한 동성결혼 관련 기사 약 50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가 지지하는 논조였다. 동성결혼을 반대한 기사는 전체의 9%에 불과했고, 나머지 44%는 중립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퓨리서치가 전국적 성인 1천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비율 51% 대 42%에 비해 훨씬 더 호의적인 것이다.



3대 케이블 뉴스채널 가운데서는 진보성향의 MSNBC의 보도 가운데 동성결혼 지지 논조의 기사가 무려 64%에 달한 데 비해 CNN방송과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각각 39%와 29%로 나타나 매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도로 퓨리서치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오른 동성결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전체의 31%와 28%로 비슷했고, 중립

적인 의견이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오바마, 핵심지지층 이탈로 지지율 급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잇단 악재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CNN/ORC 인터넷서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전 53%에서 8%포인트가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오바마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 포인트 오른 54%였다. CNN 조사에서 오바마 반대가 50% 이상 나온 것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흑인과 함께 주요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7% 포인트 떨어지는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NSA 사찰을 비롯해 공화당 티파티 등 보수단체를 표적으로 한 미국 국제정의 세무조사와 법무부의 언론인 통화기록 수집 등 잇단 스캔들 여파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에 대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은 58%에서 49%, '강하고 단호한 지도자'란 인식은 58%에서 52%로 크게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성인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나이지리아 급진 이슬람조직, 학교서 충격...

나이지리아의 급진 이슬람단체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학교에서 충격을 가해 학생 7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군(軍) 당국이 1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보코하람 조직원들은 전날 밤늦게 다마투루 지역의 학교를 습격해 총을 난사했으며 현장에 있던 7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 과정에서 2명의 보코하람 무장원들도 사망했으며 6명의 학생이 부상했다고 군은 밝혔다.

비슷한 시간에 인근 군 검문소에서는 보코하람 조직원들과 나이지리아 군인들의 교전이 벌어져 3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현지 군 대변인인 엘리 라자루스 중위가 전했다. 라자루스 중위는 "보코하람 조직원 3명이 체포돼 현재 군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x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 감 / 교 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익안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어린 심령들, 연약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육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관해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제약을 수용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제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디딤돌을 놓는 사람으로 알려진 짐 레이번(Jim Rayburn)이라는 미국의 영 라이프(Young Life)사역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 사역에

를 접할 때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목표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

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온전케 하고 그들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는 가르치는 자의 목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는 가르치는 행위의 목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행위와 가르치는 도구의 목표가 전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곧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지칭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의 경험과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끝 지, 정, 의 세 영역에서 균형있게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또한 머리

하고, 지식과 진리를 제공하고, 또 모든 학습 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영적인 지혜를 제공해주며, 또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을 깨닫도록 합니다. 또한 성경은 도움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천당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며, 또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교육적인 실제 속에서 성경이 일할 수 있도록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3. 1.5세 2세 사역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라.

교회교육을 위해서는 부교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도외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교육을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해도 준비된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은 교회교육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보다는 그들을 건강하고 능력있는 사역자로 키워주기 위해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지원을 하고 우산이 되어주었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교육사역은 건강한 리더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전략적 인턴십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 1.5세 2세 리더십 개발을 위한 사역 및 연구기관을 두고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균형있는 영성개발을 위한 예배와 교육을 디자인하라.

교회교육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있는 영성을 갖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교육목표입니다.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은 이 목표를 이루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간은 예배시간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이것을 유념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예배시간이 이 원칙을 따라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배는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을 키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디자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kim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건강한 교회교육사역은 건강한 리더십에서 출발 1.5세 2세 사역자 양성 위한 전략적 인턴십 모색

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육신의 모델을 사역에 접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역이 잘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가 하는 말이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돌볼 테니 당신은 학교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학교로 갔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는 전혀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의 철학과 방법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성경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중요한 사역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

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뜻을 부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독특성은 바로 이 가르치는 영이신 성경의 사역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역동성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교사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고, 이해하도록 하며, 상담을 해주고, 강하게도

발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못한 사역자, 사역의 빈곤성, 성장의 한계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리더십을 키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한 1.5세 2세 리더십을 키우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사역은 없습니다. 1.5세 2세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해주시기를 기대하

칼럼 음악목회 ㉞

음악의 타락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장



음악(音樂)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소리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화 결합시키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소리란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그 공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은 그 자체에 대담한 힘을 가

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능력이나 초음파로 해충을 퇴치하거나 생물을 죽이기까지 하는 힘이 음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인간과 음악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 백성

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었으며 우리에게서 찬송의 의무가 부여되어있

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사탄은 음악을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그 천사는 몸속에 악기들을 지닌 채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를 천사장이라 불렀으며 오직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과 동등한 권세와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으며 에스겔서는 루시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겔 28:13).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을 전하는 이" 또는 "셋별"이라는 의

미를 갖고 있었으며 루시퍼는 하나님께 음악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의 음악사역자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였다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교회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역사를 지 금도 하고 있으며 루시퍼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원했으며 오늘 날도 그는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예수님께서조차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사 14:12-15).

루시퍼의 타락은 음악의 타락으로 이어졌으며 그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론의 금송아지상 경배와 음악"은 모세

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숭배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음악입니다. 또한 "누부갓네살왕의 금신상과 음악"은 다니엘3장에서 누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옆드리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과 관련된 타락한 음악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징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계 12:3,7,9, 눅 10:18, 겔 28:16,17) 그가 지니고 있던 음악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쫓겨남으로 루시퍼의 타락은 음악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6월 13일(목) ~ 20일(목)
7월 18일(목) ~ 25일(목)
8월 15일(목) ~ 2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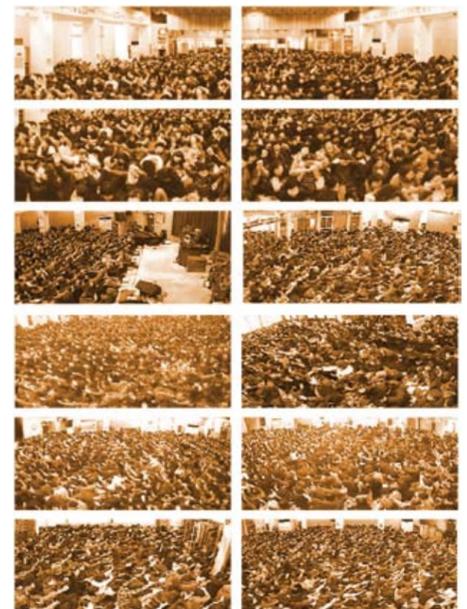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41. 근친결혼 금지의 기원

근친결혼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서 도덕과 법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우수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들로 근친결혼을 했던 적이 있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다 근친결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권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근친결혼을 금지하게 되었을까?

1. 근친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

어느 신문기사에서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이유 3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민속학자 루이스 모건의 주장으로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근친결혼이나 동종교배가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 일 것이라 한다. 만약 이 설명대로 진화역사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더 오래 전부터 근친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가 근친결혼의 위험성을 알고 금지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둘째, 필수 진화론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주장으로, '근친 간의 성적욕망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부조화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친결혼을 금지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한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진화론에 근거한 성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프로이트의 설명은 왜 근친결혼이 나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무렵이 진리인 진화론으로 근친결혼 불가의 법은 생겨나서는 안된다. 근친결혼은 안 된다는 이유는 진화론적인 생각이 될 수 없다.

셋째 의견으로는,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근친결혼을 금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

다. 자기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다른 부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친결혼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거래 관계의 결혼현상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정략결혼은 오래 전에도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인 경우에는 A로, A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A 유전자가 없어져 A 유전자의 기능이 없는 경우를 a라고 표시해보자. 만약 아버지의 유전정보가 Aa이고 어머니의 유전정보는 AA인 경우 자손들이 갖게 될 유전정보들은 다음 2가지이다: AA AA aA aA. 이 경우 자손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A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a가 있어도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위의 aA와 aA가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손은 aa aA Aa AA의 확률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어 자녀의 25% 즉 4명 중 한 명은 치명적인 상황이 될 aa가 되고 만다. 그런데 aA가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aa나 aA일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aa의 유전자 조합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 자녀 4명 중에서 한 명이 유전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경우를 생각해보라!

3. 성경의 근친결혼 금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완전했던 유전정보가 복사되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세대를 건너 갈수록 더 많은 돌연변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담에서 노아가까지 10세대였는데 약 1000년이 지났다. 그러나 노아의 손자인 아르박사부터는 한 세대가 30년으로 짧아진다. 자녀에게 유전정보를 물려주기 위한 유전정보 복사 빈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악화가 겹쳤기 때문에 홍수전보다 더 많은 돌연변이가 인류에게 생겨났을 것이다. 창조 후 약 2500년이 지난 모세시대에는 수명이 7-80세까지 떨어졌다. 인류의 몸에는 더 많은 유전적 문제들이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근친결혼을 금지시키셨을 것이다.

4. 근친결혼과 복음

만약 인류가 시작된 것이 10만 년전이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서 우리는 3333세대를 지나온 것이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최초의 세대에서 사람이 되는 동안 38억년 동안 유전정보가 복사되었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심각

인간수명 짧아진 모세시대부터 근친결혼 금지 돌연변이 유전될수록 치명적... 유전자 성능 아직 우수



근친결혼 금지와 성경의 역사
근친결혼 금지는 타락과 심판의 결과로 악화 된 환경 속에 살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인류 초기의 근친결혼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완전한 창조에서 시작 된 성경 그대로의 역사 속에서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돌연변이를 가진 것들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유전정보들은 기능이 형편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성능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돌연변이로 우연히 더 좋아졌을 것인진 모르지만) 믿음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일이고 가장 확실한 물질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약 6000년 전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셋 뿐 아니라 4300여년 전 노아의 손자손녀들도 모두 근친결혼을 했다. 그리고 4200여년 전 바벨탑 사건으로 가족별로 흩어진 인류는 계속해서 1300여년간 근친결혼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좋았던 시작에서, 죄로 인한 파괴와 무질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소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라

사라는 신혼 때에는 예쁜 얼굴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은 그야말로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자손을 잇지 못하면 칠거지악으로 여기던 한국의 풍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데 아이가 도무지 들어서지 않으니 사라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뜬금없이 잘 살던 곳을 정처없이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황당한 남편을 말리지 못하고 따라나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약점에 붙잡혀 마마님으로 한 성질부리며 유세할 사라는 남편이 뭐라하든 그저 순복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누이라고 자신을 방패막이로 비겁하게 생명을 건지려고 해도 조용히 도무지 말도 안되는 남편의 요구에 응해주는 사라입니다.

남편의 말도 되지 않는 처사에도 순복하는 사라를 하나님은 시원하게 편들어 주셔서 바로에게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물질까지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인간 남편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나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막힌 순간에 절묘하게 구해주시고 돌보심을 지니며 이제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차츰 자신의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직계자손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약속은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만나는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나약함을 통해 일으켜 감동케 하심으로 관계를 깊이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힌 예술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붙은 군식구가 너무도 많이 자기 것 챙기는데 쟁산 조카 못 가족들을 거느리며 속 풀일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마는 친 자식처럼 돌보는 아브라함인데 아내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면 그리하기가 쉬웠을까요? 조카 못을 위해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를 용감히 구해내면서도 자기 목숨위해선 두 번이나 자기를 방패막이로 하는 남편입니다. 조카만큼도 사랑을 못 받는다 속이 쓰렸을 만도 하건만...

남편이 두 번씩 자신을 앞세워 남의 남자에게로 보내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보호해주실 것을 믿으며 남편이 이로 인해 내가 아이를 못 낳아도 나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까 자위하며 오히려 마음이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빼어난 미모로 얼마든지 교만할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그릇을 키워 내십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까요?"라고 자신이 어찌될지 묻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자일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말씀 그대로 성결하게 산 제물로 자신을 드러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즉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 출만 성령 충만한 청결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말씀에 약속을 하신대로 이루어 귀히 써주십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엔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스 2권:다~못 3권: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대결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인/터/뷰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 장기기증운동 선교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환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줌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환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모아지고 전해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되지요.”

지난 6월 2일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생명나눔캠페인 행사와 기독교감리회 미주특별연회 참석차 LA를 방문한 사단법인 생명나누는사람들의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장기기증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뿐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2월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창립으로 시작해 2007년 4월 한국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인인가를 받은 생명나누는사람들은 장기이식

MARROW MATCHES)과 함께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계와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감리회 미주연회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며 미주지역 한인사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장기이식운동은 미주한인교회들에 있어서 선교지향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기증은 선교의 개념으로 다가 가야 합니다. 그동안 선교는 지역적인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패러다임에 변화가 와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와 함께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장기기증을 선교로 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또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비상사태에 놓인 것과 같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장기를 찾기 못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한다. 이는 단지

한국에서 생명나누는사람들이 전개하는 장기이식운동은 감리교회와 중심이 돼 207개 지방회 사회평신도 총무 네트웍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 운동을 범기독교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진 목사는 이 운동의 범위를 미주로 확대하게 돼 그 일환으로 미주지

조건 없는 기증, 새 생명 주신 예수사랑과 같아 미주지역 LA, 뉴욕, 텍사스 3개 지역중심 전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단체인(NGO)로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를 중심으로 법인이사회를 구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생명나누는사람들은 그동안 한국 내 대학교와 교회, 그리고 군부대 등의 협력으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일들을 펼쳐왔다. 2001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미국 전국골수기증자협회(NMDF) 산하 단체인 아시아골수기증협회(A3M)를 통해 10여명의 아시아계 환자들을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해 조혈세포기증운동을 전개해왔다. 대표적 사역으로는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성태우마만의 조혈세포기증캠페인이 있다.

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민족사회이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곳이니 이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워낙 넓다보니 홍보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 목사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그리고 달라스와 휴스턴 등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 목사는 “벨리에서처럼 장기이식 운동은 A3M(ASIAN FOR MIRACLE

임원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해 한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지역 장기이식운동을 골수기증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 각막, 심장, 폐, 골방 등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0년간 A3M과 연계해 장기이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kwdonation@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조건 없는 기증, 새 생명 주신 예수사랑과 같아”

미주지역 LA, 뉴욕, 텍사스 3개 지역중심 전개

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민족사회이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곳이니 이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워낙 넓다보니 홍보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 목사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그리고 달라스와 휴스턴 등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 목사는 “벨리에서처럼 장기이식 운동은 A3M(ASIAN FOR MIRACLE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미주 남침례교회한인교회 총회 새 총회장에 황준석 목사, 1부총회장 한종수 목사



총회장전경(아래)과 임원단(왼쪽부터 김상기 1부총회장, 황준석 총회장, 한종수 2부총회장)

미주남침례교회한인교회(총회장 김승호 목사)가 제32회 총회를 갖고 새 총회장에 황준석 목사(필라 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또 1부총회장 한종수 목사(앨범침례교회 담임), 2부총회장 김상기 목사(반석침례교회 담임)를 선임했으며 4과전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총무는 현 총무인 엄종호 목사가 연임됐다.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휴스턴서교교회(담임 이수관 목사)에서 5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최창섭 목사(직전총회장, 뉴욕에베레셀서교교회 공동담임)가 첫날 개회예배 설교를 맡았다.

최창섭 목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빌1: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35년 동안 12,000번의 설교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계산해보면 10,000시간이 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럽다. 우리의 이름, 허상을 좇아 살지 말고 아무 일에도 진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홍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조경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부 이사장), David Hardage 박사(텍사스 주 남침례교회 총회장) 등이 축사를 했으며 김승호 목사의 감사패 수여와 내외귀빈 소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미 남침례교회 총회도 같은 지역에서 열려 둘째 날 오후에는 휴스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

터 SBC 총회에 125명이 등록해 회무에 동참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는 30여년 만에 있는 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총회 세미나는 19개의 선택특별강의로 준비돼 대의원들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총회장으로 당선된 황준석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돌리며 단독후보가 투표와 거주 개표까지 하게 됐지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협동선교를 이뤄가도록 하고, 협동비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21세기를 열어가는 총회가 미국만을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민족세계선교대회 개최와 같은 사업을 통해 세계 선교비전을 펼쳐보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상정안건과 신안건 시간에 다뤄진 인터콧의 신학사상 조사에 대한 요청은 많은 질의응답과 토론 끝에 김성철 목사(화광교회)의 제안을 기초로 황준석 총회장이 수정된 안을 내놓아 새로 임명된 신학교분과위원장 권석균 목사(애틀랜타지구총교회)를 위원장으로 신학자 2명(조동선 교수, 김중환 교수)과 다른 두 신학자는 총회위원장에게 임명해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미 남침례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1845년 설립돼 4만5천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 한인교회들은 별도의 침례교회한인교회총회로 조직돼 북미지역 800여 교회들이 사역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자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주일 9:00) (새)주일 3부: 주일 3부 Tel: (201)342-9194, Fax: (201)843-5204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령: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경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98-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a.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절제일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272-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8-7576, Fax: (702)257-8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704)529-0900,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IME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월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밴앨교회 담임목사: 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IME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년청년부: 오전 6:00(월-토) 11:00 유아, 주일학교: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ugh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8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9(목사관)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타택: (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9705, (254)501-4933 408 N. 5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새벽 6:00(토) Tel: (253)565-108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awachurch.org 8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예배: 오전 13: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kpcpcz.com Tel: (480)728-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9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i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70 Fax: (718)886-004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church.org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청소년센터 여름프로그램 오픈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2013년 여름프로그램이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다. 시간은 매주 월-목 오전 9시-오후 3시, 수업료는 900달러이며 수업 등 등록료는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음악, 댄스레슨도 포함된다. 음악 댄스 레슨은 정규수업이 끝난 3시 이후에 진행되며 수업등록하지 않아도 다른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www.aycny.org ▲문의: (718)321-1010

퀸즈장로교회 2013년 여름학교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여름학교 개학을 앞두고 조기등록을 받고 있다. 대상은 아가페 유치원, 킨더가든-12학년, ESL반이며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인터넷 등록: school.kapcc.org). 또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반도 있다. ▲문의: (718)886-4040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임직식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 김혜천 목사)가 오는 23일(주) 오후 5시30분 설립 3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갖는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 최희복, 김용연 △집사: 김재영, 소창원 △권사: 백미라(취임), 김은숙. ▲문의: (516)883-1977



한기부 뉴욕지부 부흥사 연수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기부뉴욕지부 부흥사 연수세미나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 회장 송일현 목사) 뉴욕지부(회장 김영환 목사)가 지난 12일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제 3회 부흥사 연수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전강사로 나선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담임, 한기부 섭의회장)는 왕상 3장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설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첫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목이어야 하며 둘째,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셋째, 꿈속의 소원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며 넷째,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받는 6가지 복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받는 복은 "첫째, 하는 말대로 되게 하신다. 둘째, 지혜를 주신다. 셋째,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다. 넷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다섯째,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게 하신다. 여섯째, 장수하게 하셔서 길게 쓰임 받는다"고 말했다. 설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오후 강의를 송일현 목사(보라성교회 담임)가 담당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영관장교회 새 회장에 김수웅 목사

뉴욕영관장교회 새 회장에 김수웅 목사(예비역중령 탕크대대장)가 선임됐다. 지난 15일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수웅 목사는 전 회원에게 정관을 복사 배

포하고 임기동안 투명한 재정보고와 차후에는 식대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참석자들에 대형수건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했다. (기사제공: 뉴욕영관장교회)

“이단, 사이버주관 세미나 경계”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 공문발송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가 지난 14일 회원교회들에게 '이단 사이버 주관 세미나'를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특히 지난 17일부터 22일까

지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란 주제의 성경세미나가 정통기독교단과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안식교(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주최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문은 "이단, 사이버주관 세미나

경계"라는 제목으로 "근래에 들어 뉴욕일원에 이단, 사이버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되어 경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리에 행해지던 이단, 사이버의 활동이 이제는 다양한 매스컴을 이용해 집중광고를 하며 성경에 관한 세미나(특히 다니

엘서와 요한계시록 등의 종말론)를 통해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며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때에 검증되지 않은 단체나 또는 개인이 주관하는 이와 같은 세미나에 귀 교회의 성도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공지를 주시고 올바른 성경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지키며 이단, 사이버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복음화 전진기지 되도록”

한기부 뉴욕지부 이종명 새 대표회장 취임예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대표회장 송일현 목사) 뉴욕지부 제3대 대표회장 이종명 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13일 대동연회장에서 한국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배는 황영진 목사(본부장)의 사회로 대표기도 허윤준 목사(뉴욕전도협의회 부회장), 설교 김중덕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취임사 이종명 목사(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임사 김영환 목사(뉴욕지부 직전회장), 축사 송일현 목사(한기부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한기부 연수위원장), 장석진 목사(교협 증경회장), 김수태 목사(뉴욕전도대학장), 특주 서원중 집사, 광고 지인식 목사, 축도 황경일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덕 목사는 "내 손에 든 지팡이"(출4: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그것이 지팡이가 됐다"며 "부흥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곧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순종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바다를 만드는 부흥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부흥사를 세우신 목적은 마음에 불을 붙이고 끈고한 가운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사명을 따라서 뉴욕과 한국, 그리고 세계가 부흥되도록 하는 부흥사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명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의 복음화는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뉴욕지부는 한국 선배들의 전통을 본받아 미주에 있는 동포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또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 경주할 것"이라며 기도를 부렸다.

직전회장 김영환 목사는 이임사에서 "이취임식에 참석한 한국본부 팀에게 감사한다"며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현 목사(한기부 대표회장)는 축사를 통해 "한기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분열이 일어난 적이 없는 모범된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4명이 시작해서 44년이 흘러오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참대하게 됐다. 뉴욕지부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한기부 뉴욕지부는 취임식 하루 전인 12일 제 3회 부흥사 연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로목회자 수고 헌신 통해 뉴욕교회 부흥”

퀸즈장로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6월 월례예배가 지난 13일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퀸즈장로교회는 원로목사와 사모들에게 부패 식당에서 오찬을 대접하고 장영춘 목사의 설교(“나는 하나님이라”)와 건강보조제 등을 선물로 증정했다.

예배는 김용해 목사 사회로 기도 장정순 목사, 특별찬양 사모일동, 설교 박규성 목사, 봉헌기도 및 축도 장영춘 목사, 광고 정익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규성 목사는 "다윗과 솔로몬"(역대상22: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일 것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놀랍지만 그 많은 업적은 아버지 태종 이방왕이 강력한 왕도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고 설명하고 "뉴욕교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민 1세대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뉴욕의 교회들이 부흥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와 상급이 예비된 줄 믿는다"며, "원로목사님들이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지고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다음 세대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찬양한 사모특별 찬양(지휘 풀름 목사)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다. 또 총무 정익수 목사는 광고를 통해 뉴욕일원의 이단 사이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회는 7월 9일 오전 10시30분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홍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KCBN 공개모금방송 성료

총 161건 약정 4만4천655달러 모금

뉴욕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의 공개모금방송 결과 총 161건의 약정이 이뤄져 4만4천655달러가 모금되는 성과를 올렸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KCBN 공개모금방송은 단순히 운영비가 모자라 '구걸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청취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업 등 전파선교사들이 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뉴욕일원의 유일한 선교복음방송인 KCBN을 굳건하게 세울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뿌리는 씨앗"이라며 "과부의 두렵든

같이 정성이 담긴, 옥합을 깨뜨린 향기가 가득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사장 문석진 목사와 오영아 팀장, 조순재 집사 등 방송선교사와 KCBN 초대사장 김영호 장로, 황영진 목사(선교이사) 등 24명이 공동 진행했다. 인터넷방송과 스마트폰 애플방송을 듣고 싱가포르에서 현금을 보내 오기도 했으며 맨해튼 방송국 시절 KCBN전 방송사역자들이 현금을 모아 전달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이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료광고안내	면적(표지)	단가	
전면칼라	3.5cm × 4.5cm	\$600.00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선교지에 태양열 이용 솔라 보낸다 GMAN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 전개

GMAN(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 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은 △전기가 없는 선교지에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등을 보내 야간에 선교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교회, 학교, 선교단체, 커뮤니티센터에 기증하며 △전기부족 또는 전기가 없는 지역의 선교사역지원 △야학을 하고자 하나 전기문제가 있는 선교지 지원 △커뮤니티 개발하는 선교사역 지원 △후방교회들의 선교지 연결 및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랑의빛보내기위원회를 발족, 임시공동위원장에 박기호 교수, 임종표 선교사, 조용중 선교사를 위촉하고 발족위원으로는 김정한 선교사 등 20명과 42개국



GMAN이 주최하는 사랑의 빛 나누기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GMAN 현장선교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사랑의빛나누기 운동으로 가져올 선교효과에 대해서는 △선교지의 교회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성도들에게 램프를 공급해 성도들의 교회 출석율을 높임 △전기가 없는 선교지의 각 교회에 솔라 등을 보급

해 야간에 성경공부와 집회를 할 수 있게 함 △선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 학교 등에 설치해 전기요금 등의 운영요금 절감 솔라 등 충전시스템을 이용해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 소형전자기구 충전가능으로 선교사의 전기 없는 오지 선교사역 지원 등이다.

GMAN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약 20억 명이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 선교지의 많은 곳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교지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있다. 선교대상자들은 낮에는 일하기에 주로 밤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밤에는 등이 없기에 그저 기다린 밤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빛을 보내 밤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훗날 그들이 그 마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에 관한 문의는 (714)522-7766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15주년 감사예배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 생명의전화 창립 15주년 기념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바다윗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승창 목사(제3기 상담봉사원)가 대표기도를, 정석기 집사(제17기 상담봉사원 회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한아름선교함장단(지휘 이경호 목사)이 특별찬송을 했다.

이어 이용덕 목사(운영위원, LA 벨엘장로교회 담임)가 "아버지에게 물으면"(수4:19-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바다윗 목사(LA 벨엘장로교회)가 봉헌송을 불렀다.

이어 이운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축사했으며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수여시간을 가졌다.

이날 메달수여식에는 3000시간 상담봉사원인 이기수(3기) 씨를 비롯 1000시간, 500시간, 300시간 상담봉사원들에게 각각 메달 및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1년간 인턴수료 상담봉사원으로 수고한 16기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예배는 류우길 목사(제3기 상담봉사원)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오는 25일에 열리는 KCCD 차압방지 박람회 대하여 임혜빈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KCCD 차압방지 박람회 연다 25일 오전 10시-오후 2시 월셔감리교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오는 2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셔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제12회 무료 주택차압 방지 박람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최근 용자 내역서 사본, 최근 재산세와 주택보험 내역서, 월급 내역서 사본(지난 3개월분) 또는 집주인과 기타 가족 수입 내역서, 자영업자는 3개월분 손익 내역서, 2011년과 2012년도 세금 보고서 사본, 수입증명서류, 최근 3개월분 은행 거래 내역서,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각종 공과금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임혜빈 회장은 "최근 차압에 대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과 12년 사이에는 그전보다 32%가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2011년보다 3% 감소했다"고 밝히며 "차압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차압 위기에 놓여있다. 이분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석해 KCC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차압방지박람회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코, 체이스 등 주류은행들이 참가해 박람회에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차압방지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된다. 등록은 www.kccd.org 혹은 (213)985-150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노년의 아름다운 삶, 롱텀케어로 준비" 소망소사이어티 제55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모)가 주최한 제55차 소망 정기교육 세미나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개최됐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주혜미 교수(로드랜드 대학교)가 웃음치료를 대해, 이경미

재정컨설턴트 어드바이저(AXA)가 은퇴 전후를 위한 재정 관리에 대해 강의했으며, 유분자 이사장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경미 어드바이저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됐다. 75세에 은퇴해도 많은 분들이 90세 이상 살게 된다"며, "65세 이

상 노년층들은 노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중 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분들에게 필요한 롱텀케어"라고 밝혔다.

그는 "롱텀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목욕, 용변, 옷 입는 것, 먹는 것, 화장실 이용, 거동 중 2가지 이상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며 "노년을 불편함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롱텀케어를 비롯 보험 상품 가입 등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뮤지컬 선교단 FIT 공개 오디션

뮤지컬 선교사역팀 FIT(단장 이해연)에서 배우 오디션을 오는 24일(월) 오후 7시에 LA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213)248-9772

창대교회 경로잔치

창대교회(담임 이훈준 목사)가 30일(주) 오후5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국악팀과 찬양팀, 장로찬양팀 등이 출연하며 레크리에이션 등 많은 선물과 음식으로 어른들을 섬기게 된다.
▲문의: (909)388-2940, (213)458-1833

2013 KIM 리쉬마 비전트립

KIM선교회(Korean Israel Mission)가 주최하는 2013 KIM Lishmah Vision Trip이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본 비전트립은 21세기 꿈이 열리는 교육을 위한 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 유대인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테마여행이다. 가이드 및 디렉터로는 허정문 목사(히브리대학교 유대-기독교 비교종교학 박사과정), 쯔비베이커만 교수(히브리대학 유대인교육센터 학장), 바록 슈바르츠 교수(하브루타 교육전문가), 호렌치크 가브리엘 교수(히브리대학 유대인교육 심리학자) 등이 섬기며 경비는 1,400달러(항공료 제외)다.
▲문의: ddazii@hanmail.net, ddazii@gmail.com

멕시코 일일 단기의료선교팀 모집

지역교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의료선교회(대표 김인철 목사)가 오는 7월 4일 새벽 3시 출발해 당일 오후 10시에 돌아오는 1일 멕시코 티와나 단기의료선교팀을 모집한다.
▲문의: (818)621-4256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파타임으로 섬길 1부 찬양대 지휘자, 부지휘자 및 해프 타임으로 일할 음악간사를 청빙한다. 신학생이나 신학을 마치고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한 기혼자로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소개서, 이력서, 추천서 2장이 필요하다. 마감일은 7월 1일.
▲문의: (714)772-7777

순복음복미수호총회 목사고시 공고

순복음 복미수호총회(총회장 이종한 목사)에서는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를 공고했다. 목사고시는 필기시험 및 논문, 설교, 면담으로 진행되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시 및 면접은 9월 16일이며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갖는다.
▲문의: (714)318-9528, (323)317-3749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55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징: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 736-6500
FAX (213) 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종교 교류·인도적 지원 확대 민족공동체 회복을”

한반도평화연구원 포럼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통일문제가 비용-편익의 문제로 단순 치환되면서 ‘돈의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회복,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같은 ‘사람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거나 낭만적인 견해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남산동 청어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사장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 원장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제38회 포럼에서 “통일이 남한사람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 정도로 취급되는 사회적 풍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과 통일비용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통일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크리스트교와 교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자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트교가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논의의 초점을 경제적 비용 중심에서 사람의 문제, 인도주의와 윤리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통일비용을 앞장서서 내겠다고 자원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따라오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이 이뤄지도록 우리 사회를 ‘살고 싶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점검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내가 당장 그 고통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민족구성원에게 부과된 고된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이기적 무관심이 빠지는 것은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공의(정의)와 사랑, 평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하며 통일은 무조건 ‘선’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하는 가치라는 이유로 현재의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

추고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문식(남북나눔운동 사무처장) 산울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점점 더 깊어가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긴급한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이를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살림’의 정신으로 ‘종교 교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민족통일성 회복과정’에 깊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 인도주의와 아가페 사랑의 실천으로 정권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적 편협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에 힘써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종교 포교활동에 혈세 321억원이 원말”

교계,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지원안 상정 반발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지원안을 다시 상정해 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5년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훈련원에는 321억원의 국가 및 시도 예산이 지원돼 특정종교 포교용 시설에 거액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익산지역 교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평사회시민모임(공사모·대표회장 강명석 목사)는 12일 익산영등동 반석교회(이병진 목사)에서 긴급기도회 및 대책회의를 갖고 예산지원안 상정 철회를 주장했다.

공사모는 “특정종교 지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불교는 훈련원 건립목적은 원불교 교유의 명상과 선(禪)산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밝힌 만큼 지역관광 활성화나 범국민적 효용성 등 예산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사모 실무위원장 이병진 목사는 “종교행사나 종교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당연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며 이를 타종교인이나 국

민에게 전가해선 곤란하다”며 “예산지원을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모는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켈기대회 및 특별기도 집회를 가졌다. 공사모에 따르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는 2016년까지 국비 214억원, 시도비 107억원 등 3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는 전체 건립비 428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불교 재단 자체 부담은 107억원에 불과하다.

훈련원은 익산시 웅포면 대봉암리 일대 부지 2만4482㎡에 1만 1800㎡ 규모로 건축된다. 이곳에는 마음치유센터와 도덕교육센터, 각종 체험시설, 숙박동 등 16개 시설이 들어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명상이나 마음치료(힐링)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훈련원 건립을 원불교 포교용 사업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며 “훈련원이 관광명소로 개발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표절·예배당건축 당화중심으로 원민히 해결”

한목협, 사랑의교회 관련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사랑의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면 좋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 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자숙기간 후 한국교회를 위한 진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남아공 대학측의 최종결정문 공개

이후 논문표절 논란은 한풀 꺾였지만 새로운 시비와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목협의 ‘당회 중심 해결’이라는 방향 제시는 의미가 적지 않다.

한목협은 18일 경기도 안성 사랑의수양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수련회’에서 ‘사랑의교회여, 새롭게 출발하라’는 성명을 내고 교회사태의

본질이 예배당 건축논란과 맞물린 위기가 표출에 있다고 진단하며, 당회의 책임 아래 교회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한목협은 “교회 사태의 본질은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예배당 건축논란과 맞물려 교회가 본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위기가 감이 표출된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당회의 책임 아래 전 성도들이 하나 돼 코람데오 정신에 입각해 올바르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사력을 다한 고

한층 원로목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다시금 한국교회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기도하며 자숙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회복해 한국 교회를 위한 진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목협은 교회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신길교회, 새성전 ‘암반수’ 주민에 식수 제공

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으로 개방 큰 호응

서울 신길교회(담임 이신웅 목사)가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발견한 암반수를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식수로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교회 새성전이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길교회 새 성전은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3만 321㎡에 달하고, 4천여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신길교회는 건축과정에서 하루 100톤 가량 생산되는 지하 암반수를 발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대를 만들었다. 교회는 또, 예배실과 집회공간 등 100여 개의 공간을 체육관과 구로 예술홀 등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열린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했다.

이밖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대 1천 대 가량 수용 가능한 주차공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신길교회

는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진 주차 시설 가운데 3개 층(약 400여대 주차 가능)을 주중에 지역주민들에게 최소 관리비만을 받고 제공하기로 했다.

이신웅 목사(신길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것은 복음전도의 문이 이뤄지는 것이다”며, “교회가 동네되고 동네가 교회된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길교회가 새성전 건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최우선 시하면서 지역주민들 역시 교회들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꼽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관계자, 교계인사, 지역주민 3만여 명이 참석해 신길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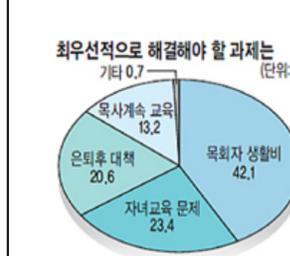
‘남북회담 재개 바란다’ 한기총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남북교회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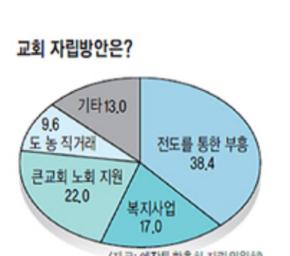
위원회는 16일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남북이 당국 회담을 갖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수석대표의 격(格)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남북 대화국면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고 밝혔다. 한기총은 북한에 대해 “격이 맞지 않다고 회담자체를 무산시키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버리고, 대화하자는 제안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예상통합 1,543명 설문



미자립교회 목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생활비와 자녀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목회자들 중 약 40%는 ‘전도를 통한 부흥’을 교회자립 방안으로 여기고 있었다.



예상통합총회 교회자립위원회(위원장 정계욱 장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광주, 창원, 청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의 참석자 1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목회자 생활비’(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녀교육 문제(23.4%)와 온회유 대학(20.6%), 목사계속교육(13.2%), 기타(0.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65.5%가 목회보다는 생활비 마련과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미자립교회의 자립방안’과 관련, 응답자 중 38.4%는 ‘전도를 통한 부흥’을 꼽았다. 이어 근로회·노회 지원(22.0%), 복지사업(17.0%), 노동직거래(9.6%)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 관계자는 “교인수를 늘려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미자립 교회들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42% “생활비 고통”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전도 일반도로만 가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틈새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등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목회자 생활비’(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녀교육 문제(23.4%)와 온회유 대학(20.6%), 목사계속교육(13.2%), 기타(0.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65.5%가 목회보다는 생활비 마련과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미자립교회의 자립방안’과 관련, 응답자 중 38.4%는 ‘전도를 통한 부흥’을 꼽았다. 이어 근로회·노회 지원(22.0%), 복지사업(17.0%), 노동직거래(9.6%)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 관계자는 “교인수를 늘려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미자립 교회들이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서비스명	1회	10회
비타민+고주파	\$35	\$300
여드름	\$40	\$350
출기세포	\$120	\$1,000
아쿠아솔루션	\$100	\$800
늘어진팔뚝 슬림	\$30	\$250
배경락	\$35	\$300
등경락	\$40	\$350
전신경락	\$120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45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	------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도 쇠퇴

최근 가톨릭 지도자가 가톨릭교회의 쇠퇴를 탄식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주요와 신부, 수녀가 있으며 12억 신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가톨릭의 대륙인 남미에서 매년 100만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2010년 미국에서는 1,37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신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톨릭의 나라 이탈리아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신자수가 2/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주의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가톨릭뉴스). 브라질 사람 네 명 중 한 명은 복음주의 신자라고 한다. 4천4백만 명의 복음주의교회 신자들의 사회적 지위도 과거 가난한 계층에서 신분상승해 복음주의 단체들이 방송, 라디오네트워크를 소유하며 정당도 조직할 정도이다. 가톨릭 신부들은 정치활동을 못하는데 복음주의 신자들은 활발하게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복음주의 신자들은 강한 보수 성향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이혼 등 일부 가톨릭이 금지한 윤리에 개방적인 면도 있다.

가톨릭은 브라질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세력 집단이 되고 있다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50%가 복음주의 신자들이며 상원 의원의 경우도 복음주의자가 68석을 차지했다. 반동성애주의자인 동시에 복음주의 설교자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을 들은 미얀마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의 마을을 습격(사진), 한 명이 죽고 많은 모스크와 고아원이 불타다.

지난 3월에도 양편의 충돌로 수천 명의 가옥이 불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작년



만 해도 미얀마에서 충돌로 200명이 죽고 14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말았다. 양측의 충돌은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일어났다. 말레이시아로 피신한 로힝가 이슬람교도들이 말레이시아의 한 도시에서 불교도 미얀마인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여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고 말았다.

동남아에서 개혁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얀마는 종교와 인종 충돌 외에 카친 등 소수 부족들이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카친족 8만5천명은 전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사진2).

행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살형을 제의했다고 한다.

금년에만 벌써 40명이 참수형을 당하였고 작년의 경우엔 76명이 참수를 당했다. 이슬람 율법 사리아는 간음한 자나 큰 죄를 범한 자는 참수형을 하도록 가르친다. 간음의 경우 주로 여자들이 참수를 당한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의 참수형이 많아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항의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물론 사우디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사우디는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참수형이 집행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명의 레바논 남성과 사우디 남성이 한 여성을 기독교로 개종 시켰다며 이들을 6개월 징역에 300대의 태형에 처했다.

“성과 속(俗)”이 충돌하는 터키

중동 여러 나라에서 전개되는 “성과 속”의 전쟁이 터키로 번지고 있다. 최근 터키도 에르도안 수상의 이슬람주의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이 이슬람교의 케말 파샤를 기념하는 공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데모가 시작됐다. 케말 파샤는 1923년 칼리프(혹은 술탄) 왕국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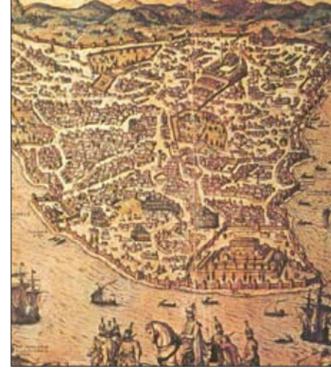


면서 세속화를 추구했다. 사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강력한 이슬람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에르도안의 이슬람화 정책에 세속주의자들이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술을 못 팔게 한다든지 거리에서 청년 남녀들이 키스를 못하게 한다든지, 스튜어디스들조차 긴 옷에 립스틱도 바르지 못하게 할 정도인 이슬람 율법주의를 강요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세속주의적 군부를 제압하고 많은 장성들과 언론인들을 구속하는 등 사망 언론은 이미 작년부터 터키가 불안하다고 예견했다. 터키는 본래 비잔틴 기독교(히랍정교회)의 중주국이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터키 서남부에 있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역에 신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아쉽게 한다.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 참고로 20세기 초 터키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사이프러스로,

사이프러스의 이슬람교도들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터키로 이동하도록 하여 현재의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다 사이프러스로 이동했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란, 터키 등 중동의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전개되는 성과 속의 대결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슬람으로

“터키”라는 단어는 투르크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인종은 몽골족의 사촌격인 돌궐족이다. 중국은 터키를 오랑캐로 여겼다.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이들 “오랑캐”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다. 9세기에 아랍 무슬림이 중앙아시아를 침략하자 투르크족은 중국에 대한 반발로 아랍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만다.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네스토리안교회가 아주 강세였다. 그러나 대부분 투르크 부족장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만다. 투르크는 용맹해 계속 진격, 서구를 위협한다.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서방의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다. 이후 오스만투르크라는 더욱 강력한 투르크 족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자 세계최대의 정교회 성당이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만다. 부패한 정교회와 동로마제국은 이슬람교의 투르크에 무너지게 된다. 수도 이즈미트 이슬람으로 바뀌고 성당은 모스크로 변한다. 성 소피아 성당에는 지금도 십자가와 초승달 상징(이슬람 상징)이 공존한다. 케말 파샤가 세속화를 추구하면서 모스크의 집회가 중단되고 광명성으로 공개된다.

당시 로마군대와 비잔틴 군대가 힘을 모았다면 투르크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개탄한다. 비잔틴을 증오한 로마 관료들과 군인들은 도리어 투르크 “이방군대”의 진입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마르틴 루터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부패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 가톨릭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 파위”를 적그리스도로 말할 정도로 이슬람을 위협한 종교로 간주한다.

“무함마드는 일찍이 비잔틴 제국 침략을 명령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무함마드가 이미 콘스

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이슬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함마드는 죽기 전 아라비아 주변의 많은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권유한다. 특히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제국 왕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한다. 내용을 소개하면, ‘바로 지금, 나는 당신을 이슬람으로 초청합니다(알라에게 항복을 의미한다). 이슬람교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이요. 이슬람교를 영접하면 알라가 당신에게 갑절의 상금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슬람의 이 초청을 거절하면 귀하는 백성(당신 나라)을 잘못 다스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함마드 사후 아라비아의 무슬림 군대가 중동과 유럽 일부,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진격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아시아까지 갈로 진출한 것이 바로 무함마드의 이 초창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참호를 파다가 검은 돌에서 섬광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알라의 특별한 영감이 임한 것으로 확신한다. 그 영감이란, 아라비아 주변은 물론 비잔틴까지 정복을 하라박은 것으로 그는 무슬림들에게 “우리는 코스로스(페르시아 왕)와 사자(동로마 제국 임금)의 보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무함마드의 가장 권위 있는 자서전에 근거한다. 무함마드 사후 150년 뒤에 Ibn Ishaq이 알라선지



자의 자서전 Sirat Rasul Allah을 썼는데, 이 자서전은 무함마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무함마드 자신이 27번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오만 제국 역시 이슬람의 전파자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 셈이다(Robert Spencer, The Truth about Muhammad, New York: Regnery Pub., 2006, 152).

최근 터키 세속주의자들의 완강한 저항의 이면에는 에르도안의 야심이 있다. 그는 경제발전의 여세를 몰아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과거 오스만투르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터키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아랍의 이슬람과는 달리 범투르크주의를 항상 내면에 깔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투르크인들을 이슬람교로 통일해 투르크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중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위구르 역시 투르크인들이다.



미얀마 갈수록 종교인종 갈등 심가

최근 미얀마 법원이 불교 여신도를 폭행한 무슬림 남성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자 로힝가족 이슬람교도들이 강력 반발, 종교와 인종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달단은 이슬람교도 남성이 24살의 불교도 여성을 폭행하자 이 소문

사우디 법무부장관, 참수대신 총살형 강구 중

엄격한 이슬람법을 시행, 수니파 튀리탄 국가로 불리는 사우디는 해마다 수백명에서 수천 명이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보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칼로 목을 자르는 끔찍한 형벌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참수가 가혹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참수를 하는 집



사우디 법무부장관, 참수대신 총살형 강구 중

A large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Catholic, Protestant, and Evangelical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the Bay Area. Each ad includes the church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손으로 ‘움켜쥐는’ 아날로그사역에서 손가락으로 ‘터치’ 하는 디지털목회로”

(1면에서 계속)
또한 목회자의 연령대에서도 SNS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8-47세 사이의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SNS 사용을 통한 디지털 목회를 72%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67세 이상의 목회자들은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목회가 유효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SNS 방식을 통한 디지털 목회에 상당한 개방성을 보이는 반면, 담임목회자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60세 이상의 목회자들은 SNS혁명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킨너맨은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SNS 사용이 대세이지만 아직까지는 60세 이상의 목회자들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들에서는 사용하지를 꺼려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바로 SNS의 잠재력과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윗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2-way engagement). 그러나 교회에서는 마치 주일 광고시간처럼 단순하게 교회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예배시간에 트윗이나 페이스북 사용이 불편하다는 예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킨너맨은 “적절하게 바람직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교인들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목회자들도 SNS를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사회

미국교회 70% 페이스북 사용... 버스터세대 목회자는 86%

적으로 교인들과 일방적인 지시나 포고가 아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소위 목회현장에서 “SNS 대세론”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곧바로 SNS를 목회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공간을 실제 목회현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이 어떻게 실제 목회현장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아직까지 나이에 목회자들에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SNS 사용의 주역인 젊은 목회자들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팔로워나 친구 등록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이 실제로는 “제자도를 걷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양극단의 입장에서 점점 더 SNS 사용을 통한 디지털 목회는 증가할 것이다. 아이패드의 모토(Motto) 가운데 하나가 ‘Less in your hands, More at your fingertips’(손에 드는 힘은 덜고, 손끝의 재미는 더하고)이다. 이것을 목회에 적용한다면 손으로 ‘움켜쥐는’ 아날로그사역에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디지털목회로 나아가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거추장스럽게 손으로 거머쥐려고 했던 방식은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는 섬세한 손가락의 터치로 감동과 감성을 추구하는 사역의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로그(digi-logue)’적인 감성의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NS 목회는 그 가능성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길목에 서 있다!

필리핀

안녕하세요
길었던 여름방학(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이 끝나고 2013년 새학기가 6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림빠 마을 안의 새희망학교는 이제 정착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편 장미꽃 뒤에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가끔씩 라부안 마을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림빠 마을을 가기 전에 라부안 경찰서 앞길을 먼저 지나갑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이미 표적이 되고 있기에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2010년에도 다른 사역지 보퐁에서 납치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슬람 반군단체에서 현지인을 잡아갔는데 한국 사람인 저를 사실 잡아갔다고 하였는데 잘못 알고 잡아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선교사로 외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능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 하나님과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 며칠 동안 저희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늘이 어둡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인터넷이 여러 날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드디어 연결이 되어 메일을 체크해 보니 저희 선교부로부터 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지로 1995년 5월에 나왔습니다. 1996년 4월에 선교지에서 만난 공선교사와 결혼을 하였고 줄곧 잠보앙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잠보앙가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였고 저희는 계속 남아서 무슬림 지역에서 조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반군 단체로부터 위협, 질병(아메바, 맹기열), 외로움과 함께 하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역은 갈수록 자리를 조금씩 잡아 가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희의 재정 상태가 너무 부족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선교부에서 온 메일은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씩 선교부로부터 선교비를 받습니다. 한 달에 1500달러씩 두 달해서 3,000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선교비가 바닥이 나서 선교부에서 3,000달러가 아닌 2,330달러만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 그리고 현재 선교부 통장에는 8,971원이 있다고 하는데 파송교회가 없다보니 갈수록 선교비가 줄어들다보니 드디어 바닥이 났습니다. 외진 선교지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담당할 때 한국의 파송교회는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로 4년 전부터 선교비를 거의 송금하지 못하고,



저희 아들 두 명 헌탁(중학교 3학년), 존탁(초등학교 5학년)이가 현지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가끔씩 수업료가 밀릴 때가 많아서 쓰고 또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하지만 현지도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다보니 선교부 통장의 선교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조만간 선교부에서 강제 송환이 있을 것입니다. 강제 송환이 되면 부족한 선교비를 채우고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선교지는 따뜻한 장소가 못됩니다. 사역하다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자주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어렵다보니, 저처럼 보잘 것 없는 선교사에겐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에 불러간다고 해도 사실 방문할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불안하게 사역을 하며 이제까지 버티어 왔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파송교회가 생겨 사역을 할 때 기본적인 헌금이 정기적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불안하게 사역을 하며 이제까지 버티어 온 시간이 18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도 더 연결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즘 공선교사는 감상선 저하증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헌탁이는 배가 자주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곤 합니다. 저는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외지고 낙후된 선교지는 의료보험도 안되고 병원비와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 안 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되곤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가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과 필요를 위해서... 최근의 가족 사진 한 장 보내드립니다.
필리핀의 서남단 잠보앙가 선교지에서 오정윤 선교사 드림
▲이메일: ohngongtak@hanmail.net

선교 편지

우크라이나

따나 할머니의 장례식
저의 교회에 꾸준히 예배드리는 고려인의 할머니들 가운데, 지난 봄에 80세 되시는 최따씨야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를 치른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따씨야나 할머니의 큰 손인 닷도 있었지만, 40년 넘게 오랫사에서 사시는 동안 많은 이웃들과 정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진 후 이주해 온 대부분의 고려인들과는 달리, 교회 할머니들께서는 196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오신 분입니다. 이런 고려인들은 아주 소수인데 당시에 지식인들이거나, 농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특별히 오신 분들입니다. 지식인들은 군 장교, 연구원, 교사들이고, 농사로 오신 분들은 우크라이나에 처음 양파를 보급하려 오셨습니다. 오랫사할렐루야교회는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고려인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33년생이신 최따씨야나는 중앙아시아가 아닌 극동지역 블라디보스



톡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1937년 10월이어서 따씨야나 할머니가 강제이주 기차를 탄 때는 4세 된 어린 아이였지요. 당시 화물칸 기차를 어렵게 얻어 지역으로 계속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청년기를 보내시고 결혼하신 후, 가장 서쪽 옛땅까지 이주해서 양파 농사와 시장에서 마르팜 장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말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따씨야나의 죽음은 고려인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방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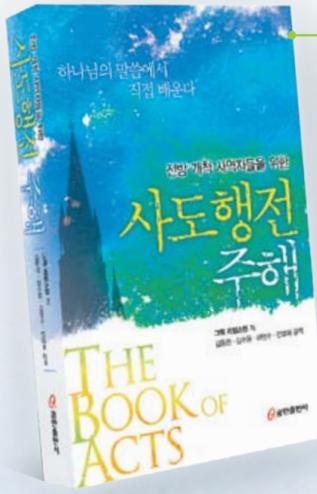
렇게 몸부림쳤던 고려인의 기구했던 삶이 역사 속으로 아무런 말없이 그냥 묻혀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무엇을 남겼는지, 또 이 땅에 남은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 주었는지 생각하면 왠지 답답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한국어를 생소한 외국어로 여기는 고려인 청년들은 자신을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여기며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방인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표정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조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끝자락까지 찾아오신 오랫

사의 고려인들...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땅으로 봉사 짓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고려인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그치지 없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려인이 세운 오랫사할렐루야교회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영적인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터전 없이 구소련 전역을 다니며 농사짓는 고려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을 안겨주어야 하는 할렐루야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지금 서있는 자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랫사할렐루야교회가 고려인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정만규 선교사 드림
▲이메일: visionukraine@hanmail.net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저 / 536면 / 20,000원 / 신국문 양장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경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저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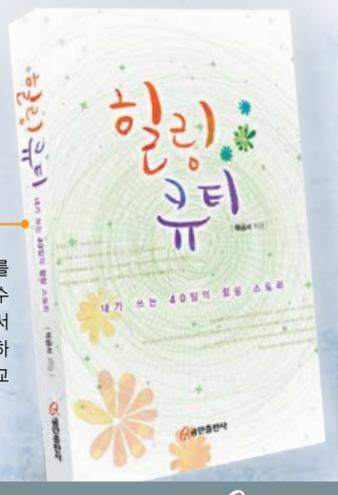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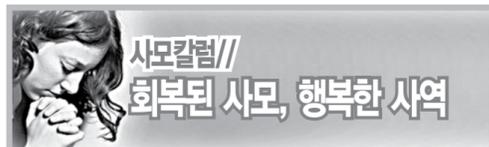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자 / 312면 / 13,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저 / 342면 / 12,000원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3 사모의 사역 가꾸기 (3)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주님 손에 이끌려온 길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내려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역이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땀을 흘렸습니...

복하는 차원에서 설교 전 짧은 스킷드라마로 성도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잘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는 설교를 이해하는데 더 없는 도움이 되어 많은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교회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드라마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프로급이 아니고 핸드캡들이었습니다. 사지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정신지체자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더욱 감명적인 것은 그 드라마를 담당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인도하시며 매주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당당하게 목사님 곁에 서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 속에서 사모의 뚜렷한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사모사역을 시작하던 그 당시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인성과 충격은 곧 한국어로 돌아가서 사모들을 섬기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모는 역시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린 후 사모들을 위한 교육원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사모들의 문제는 역시 남편의 이성문제 및 외로움이었습니다. 전화상담 속에서도 남편의 이성문제 고민하는 사모들의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날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생명의전화만이 있을 때 사모들은 할 수 없이 그 전화에만 의존하다가 마침내 사모들을 위한 전화로 물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들의 울음소리에 건널 수 없어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은 상담만으로는 치료가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은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사모들을 위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준비된 사모가 행복해 남편목사에 대해 바른 지식 갖도록 관찰 질문 조사

외쳐왔습니다. 그러한 헌신의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은 수십 년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 보니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때로는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많은 대중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지도자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해보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어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시어 골리앗을 이기게도 하시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목상할 때마다 사모들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사모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런지요

1980년도 필자가 영국에서 각 교회마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는 논문을 위해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 교회 사모를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1)사모로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요? 2)사모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부분의 사모들은 남편이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후회한다는 사모도 있는 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하다 재미 있다 주일이 보람있다 이런 대답이 주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모에 대해 호기심이 나서 더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신앙고백과 배경은 어떠한지? 하는 질문에 그 사모님은 4세대 크리스천가정에서 태어나 사모가 되고 싶어서 목사와 결혼을 하였고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사모들이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절에 영국사모는 남편의 목회를 돕는 즐거움이 다른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사모의 자리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모여드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언어의 장막을 극

상담교육원을 개설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다루질 수 없는 문제들은 사모가 되기 위해 예비지식조차 알지 못한 채 사모가 된 여성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사모들이 준비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에 대한 준비, 인격에 대한 훈련, 여기에 사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사모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인격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모를 사모되게 한 남편목사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 부부들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아도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얻어진 사모이기에도 남편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사역의 대가이신 박승운 장로님이 배우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강조하기를 박사논문 쓸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 있을 배우자에 대한 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다면 목회자부부는 더 많이 연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바른 지식의 정보는 사모들로 행복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십시오. 관찰하고 질문하고 조사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의 가정교육은 어떠한지, 성격과 기질은 어떠한지. 성장기 때 받은 상처나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조사한 후에는 그에 대한 사모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사모세미나를 다니다보면 남편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모들도 의외로 남편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에 약합니다. 어떤 논리로 관찰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 이 또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준비된 사모가 행복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행동, 말보다 더 큰 음성(요13:2-15)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의 가르침이 아닌 행동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들과는 다른 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이미 자신을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셨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종의 행동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는 말만이 아닌 행동이 얼마나 큰 음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준 삶의 교사였습니다.

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이미 자신을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셨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종의 행동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는 말만이 아닌 행동이 얼마나 큰 음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준 삶의 교사였습니다.

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요13:2-15)

예수님께서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온 몸이 이미 깨끗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홍탕물에 빠져 온갖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절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전혀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오염을 깨끗게 해야 하며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발 밖에

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오염을 깨끗게 해야 하며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발 밖에

수 행복을 주는 사람(요13:16-17)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 우리의 주님되신 예수그리스도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예수께서 삶의 중심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겸

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그의 인도함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좋으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주인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임을 아는 자가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 예언대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요13:18-20)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오래 전부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자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자인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배교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ambassador)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representative)로 선택 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금 중생하지 못한 가롯 유다(요13:21-30)

가롯 유다만큼 예수님 곁에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있는 가르침,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 소외당한 자를 품는 자애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 등 모든 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모범을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모범만으로는 죄인이 변

화 받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로지 성령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새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중생(regeneration)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삶의 모범들을 중생한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되돌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성령하나님의 새게 하시어 중생의 역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에게 의지하며 간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토 제자의 무리에 섞여있었던 가롯 유다(요13:21-30)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 그를 의심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돈계를 맡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잠수했던 곳, 가르치셨던 곳,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든 현장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원수들로 인해 밧 곁에 가라지가 자랐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종들은 우리의 곁에 생각이상으로 밀착돼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랑되신

예수님께 순결을 유지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 이미 뿌려진 가라지, 가롯 유다 같은 존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밧이 다치지 않기 위해 가라지가 함께 자라갈 허용했던 주인처럼 제자들 사이에 가롯 유다를 허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의 가라지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우리 곁에 뿌려질 수 없습니다.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Roman Catholic, Protestant, etc.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7)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목미술선교회 회장)

D. 이스라엘 평야 및 해안 평야 (Jezreel Plain, Coastal Plain)

주일에베는 가이사랴 원형극장에서 드리기로 예정됐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하신 주님은 부활사건으로 인해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를 받으시는 구속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주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더욱 실감케 됩니다, 예수님!"

해안평야란 글자 그대로 해안을 따라 발달한 평야다. 매우 비옥한 곳으로서 북쪽부터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레바논 바로 밑이 악고(아셀, 페니키아)평야, 그 아래는 악고평야와 사론평야 사이에 옆으로 길게 형성된 것이 이스라엘평야(평원)다. 다시 악고평야 아래로 사론평야, 그 아래가 블레셋평야로 총4개의 평야로 이루어졌다. 흑자는 이스라엘 평야는 남북 해안평야로 구분하기보다 유다

졌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쓰기로 한다.

유대 '쉐펠라'(성경에서는 '낮은 지대', 수15:33)란 유대지역의 지중해 쪽 방향에 있다. 유다산지와 블레셋평야 사이에 위치한 구릉지대를 가리키기도 했지만(렘17:26) 낮은 지역이라 함은 유다산지보다 낮기 때문인데 낮은 해안평야에서 높은 유다산지로의 입구 역할을 했기에 중요한 위치였다.

해안평야는 처음엔 폭이 4-5Km로 시작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30-40Km로 넓어진다. 해안의 사암층과 산지에서 내려오는 토양과 물이 섞여 좋은 삼각주 농경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안평야는 갈멜산과 로쉬-하크나와 세 개의 강 즉 악어강, 아르곤강과 와디 엘아리쉬(성경에서는 애급강)로 구획



가이사랴의 웅장했던 건축물의 흔적들

평야나 사마리아협곡, 남방의 네게브 지역 같은 동서지역으로 구분한다. 순례예정에서는 이스라엘평야와 해안평야가 분리돼있다. 그러나 순례단의 동선은 해안평야, 이스라엘평야, 다시 해안평야로 이어

된다.

이 해안에서 약간 들어온 육지를 따라 남북으로 형성된 길이 있으니 이른바 '해안도로'(해변도로, 바다(옆) 길, Via Maris)다. 오늘날의 바다를 보며 달리는 관광용 해

변도로에 비하면 좀더 상업과 군사목적성을 가진 내륙도로라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애굽의 고센에서 시나이 반도의 해안지역을 따라 가사까지 가는 주요 도로였다.

이스라엘(Jezreel)평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뿌리심(자) 혹은 흩어심'을 함축한데서 유래하며 헬라어로는 에스드라엘론이다. 므깃도, 아마켓돈 평야와 같이 쓰인다. 이스라엘 인명과 지명으로 쓰여 왔으며 도성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계곡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었기에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궁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라(왕하9:20).

현재는 세린 마을이지만 성경에서는 잇사갈 지파의 영역에 속했다(수19:17, 18). 벨산, 이스라엘 같은 동부와 욱느암, 다불산, 이블람 같은 서부로 나누고 므깃도 골짜기와 평야가 공존한다.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르단 골짜기를 이어주는 동서통로의 요충지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해주는 대로가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항상 전쟁이 잦았다(삿1:22-27). 8호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다.

D-1 기랴트 여아림(Kirijath-jearim or Kirijathjearim)

'기랴트'는 성읍이란 뜻이고 '여아림'은 삼림, 숲이니 '삼림의 성읍'이란 뜻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으로 기랴트 아르바가 된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는 유대평 바알라 라고 돼있다. 이 기랴트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던 법궤가 생각난다. 다윗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렵다.

이름처럼 산의 아래부분은 온통 숲으로 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허리우드 저택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식이 아닌 흰색의

담에 붉은 벽돌지붕으로 된 유럽풍의 집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 나무도 있었지만 집이 우세하다. 유대인들은 산 아래보다는 중턱 위에 집을 많이 짓기 때문이다. 이곳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D-2 아얄론(엠마오)

엠마오는 확실한 지점을 알기 어려우나 라트룬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 자리가 엠마오로 추정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25리(눅24:13)이며 예수님 당시에는 시골로 묘사됐다.

현대 지도에는 Emmaus-Nicopolis로서 '승리의 도시'를 겸해서 쓰고 있는데 이유는 로마시대 때는 해안평야에서 전쟁이 많았는데 승리한 자들이 거주한다는



엠마오

뜻으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인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돌아가시기 전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라 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내 보이시기 전까지 주님이신 줄 몰랐던 그들, 주님을 보게 된 이후부터 그들은 기쁜 증인이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로 일어나" (눅24:33)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돌아가 시몬에게 나타나셨어도 믿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다시금 외쳐 증거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 하는 곳. 사명을 점검해 하는 엠마오! 감회가 새롭다.

'암사슴의 장소'라는 뜻의 아얄론(Aijalon)은 세펠라에 있는 여러 골짜기 중 가장 북쪽에 있던 도시였다.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운 여호수아를 상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으니(수10:12).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손수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깃발로 삼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인 양소를 하고 이에 넘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한다는 맹세를 했으니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어리석고 성급한 여호수아! 버스 속에서나마

가만히 외쳐본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어다"

D-3 가이사랴 원형극장 (Caesarea's National Park-The Roman Theater)

어느덧 버스는 해안평야 위쪽의 가이사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멀리 읍마와 성경에는 없는 텔아비브시도시를 왼쪽으로 하고... 사도행전 24:31의 안디바드라와(안디파티아) 40여명의 대모로 수세

는 해안 쪽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사도바울이 원형극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변론했던 곳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읍마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군 백부장이었다.

해롯의 인공항구 건설은 모래를 파내고 만든 방파제는 물론 이 원형극장, 로마식 목욕탕, 전차경기장(히포드롬), 그에 따른 마사와 훈련장, 물류창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안토니우스 시자가 더 친근하다) 신전 등을 만들었으니 가히 12년간의 대규모 항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아람 통치시대 때는 육로를 사용하다보니 이곳은 무용지물이 됐다가 십자군 시대에 복구, 이곳에 거대한 요새가 세워졌다. 요즘은 다시 아스돗과 하이파 항구가 생겨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바로 수에즈 운하로 인해 항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일에베를 드렸다. 목이 맨 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를 외쳐 찬송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했다. 김혜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40절 말씀을 들고 계단 중간에서 세 가지 씨뿌리는 인내의 사역에 대해 설교하셨으니 그 옛날 바울의 외침을 연상케 하 더욱 은혜로웠다.

가이사랴 항구에는 이러한 불타는 복음의 열정과 로마를 행해 떠나는 바울의 눈물이 있었으니 결국은 씨뿌린 자는 순교로 천국을 가고 씨앗은 피조고 퍼져 씨이 나서 꽃피워 열매 맺었기에 또 다른 인내의 씨뿌림에 의해 우리 민족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던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려야 함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했다. 예배 후에는 완전 바닷가의 바울의 감옥집, 십자군 시대의 망대, 해롯의 궁전 공관 터도 보고 십자군 시대의 요새와 해자(모트 mott), 문들을 보았다.

다시 차를 타고 해롯이 만든 수로 벽을 보았다. 만리장성처럼 벽을 쌓고 그 위에 흙을 파서 약간의 경사를 주어 물이 갈멜산 자락에서부터 지중해를 따라 16Km로 이곳까지 흐르게 만든 것이다. 지금의 수도 파이프인 셈이다. 사구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니 이 부근의 모래와 바람이 얼마나 많은 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이 있었던 나사렛을 향해 마치 소년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바빠 떠났다.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초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설립 32주년 감사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임직자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주후 2013년 6월 23일(주일) 오후 5:30
- 장 소: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홈페이지 www.nyppc.net
교회전화 (516)883-1977

- ### 임직자 명단
- 장 로 최희복 김용연
 - 집 사 김재영 소창원
 - 권 사 백미라 김은숙



* 화환은받지않습니다 선교헌금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